

비전형적 역류증상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위식도역류식도질환의 빈도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오정환*, 최명규, 박재명, 한혜원, 조유경, 이인석, 김상우, 정인식

배경 및 목적 : 위식도역류질환은 가슴쓰림과 위산역류 외에 인후이물감이나 기침 등의 비전형적 증상을 일으킨다. 연자들은 비전형적 역류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식도질환의 빈도를 조사하였다. **방법** : 2001년부터 7월 2004년 6월까지 이비인후과와 호흡기내과에서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24시간 pH 검사를 시행하였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. **결과** : 1) 대상 환자는 83명으로 남자 27명, 여자 56명, 평균연령 49.5세로 검사결과를 표에 정리하였다(S.I. = Symptom Index). 2) 주 1회 이상의 가슴 쓰림은 I군에서 7명 (33%), II군에서 2명

diagnosis	chief complaint	cough (N=33)	globus (N=28)	sorethroat (N=12)	hoarseness (N=10)
I	CERD (erosive esophagitis or pathologic reflux +)	7 (21.2%)	9 (32.1%)	2 (16.7%)	3 (30%)
II	Acid hypersensitivity (S.I. > 50% or Bernstein +)	9 (27.3%)	2 (7.1%)	1 (8.3%)	1 (10%)
III	Abnormal manometry	7 (21.2%)	6 (21.4%)	1 (8.3%)	3 (30%)
IV	all negative tests	10 (30.3%)	11 (39.3%)	8 (66.7%)	3 (30%)

(15%)만 있었다. 3) 병리적 산역류 (pH 4이하 백분율>4%)가 있었던 16명 중에서 10명이 내시경을 시행하였으며 이 중 6명(60%)만 LA grade A이상의 미란이 관찰되었다. 병리적 산역류가 없이 acid hypersensitivity를 보인 II군에서는 미란성 식도염이 관찰된 예는 없었다. 3) 위식도역류질환으로 진단된 환자 군과 비역류질환 군 사이에 고하역, 위식도 역류질환의 가족력, 체질량지수(BMI), 흡연, 음주, 신체정신의학점수는 차이가 없었다. 4) 병리적 역류가 진단된 18명중 16명은 기립시 산역류만 있었으며 2명에서는 양와위와 기립시 산역류가 모두 관찰되었다. **결론**: 만성기침의 48%와 이비인후과 증상의 36%는 위산역류와 관련되어 일어났다. 위식도역류질환으로 진단된 환자들 중에서 전형적인 역류증상의 빈도는 낮았으며 내시경검사에서 미란성식도염의 진단율도 높지 않았다.

식도궤양 원인, 치료, 치료성적: 10년간의 기관 연구

아주대학교 의대 *최혜진, 김종수, 삼성준, 임태형, 최준혁, 정재연, 이기명, 이광재, 유병무, 함기백, 조성원, 김진홍

배경: 식도궤양은 유병률이 낮고 상부위장관 출혈을 유발하는 경우가 적어서 식도궤양의 원인, 경과에 대한 국내 보고가 없는 실정이다. 따라서 상부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경우 식도궤양의 빈도, 원인, 치료, 경과에 대해서 보고하려 한다. **방법 및 대상**: 식도궤양은 분명한 변연을 가진 식도점막의 열상으로 정의한다.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아주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시행한 69422례의 상부소화관 내시경으로부터 무인 240례의 식도궤양을 대상으로 하였다. 식도궤양중 악성 종양에 동반된 궤양과 내시경적 정맥류 결찰술 및 경화술 이후 생긴 식도 궤양은 제외하도록 하였다. **결과**: 식도궤양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.: 역류성 식도질환(83례, 34.6%), 약인성(34례, 14.1%), 레빈튜브와 관련된 손상(25례, 10.4%), 이물질(15례, 6.3%), 캔디디증(9례), 베체트병(9례), 방사선 유발성 식도궤양(9례), 부식성(6례), Mallory Weiss tear(4례), 수술후 생긴 궤양(5례), 결핵(2례), HSV 감염증(2례), CMV 감염증(2례), 크론병(1례), 알려지지 않은 병인(30례)등이다. 역류성 식도궤양의 76% 와 약인성 궤양 28%가 하부식도에 위치했다. 합병증으로 출혈은 8례에서 헤파는 부식성 식도궤양중 2례에서 보고되었다. 이들중 출혈 6례는 내시경적 지혈술이, 헤파 2례는 내시경적 식도 확장술이 시행되었으며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었다. 나머지 식도궤양에 대해서 약물치료가 시행되었다. **결론**: 역류성 식도질환과 약물에 의해 가장 많은 식도궤양이 유발되었고 이중 역류성식도질환의 대부분은 식도하부, 약인성 식도궤양의 대부분은 식도 중부에 위치하였다. 2례에서 식도협착이 부식성 식도염에 합병되었고 이에 대해 내시경적 식도 확장술이 시행되었다.